

# 격암유록의 삼풍(三豐)과 불사영생의 진리

## 1. 삼풍(三豐)의 정의와 본질: 하늘의 신령한 양식

격암유록에서 말하는 「삼풍(三豐)」은 세상의 육적 곡식이 아닌, 신선들이 먹는 하늘의 양식을 의미합니다. 이는 속인들은 볼 수도, 구할 수도 없는 영적인 양식으로, 인간을 죽지 않게 하는 「불사(不死) 영생(永生)」의 에너지를 뜻합니다. 세상 곡식은 매일 세 끼를 먹어도 결국 죽음에 이르지만, 삼풍의 곡식은 한 달에 아홉 끼(삼순구식)만 먹어도 배고픔이 없으며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합니다.

삼풍은 구체적으로 「화(火), 우(雨), 로(露)」의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 제1풍 화(火): 악을 선으로 변화시키는 불 성령(하나님의 빛).

※ 제2풍 우(雨): 구름 없이 내리는 신령한 단비로 인간의 심령을 변화시킴.

※ 제3풍 로(露): 이슬 형상으로 내리는 「감로(甘露)」로서, 인간의 탈을 벗고 거듭나게 함(劫後重生三穀탈검중생삼곡).

결국 삼풍은 마귀를 이긴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신이자, 죄를 사하고 생명을 주는 「감로해인(甘露海印)」의 다른 표현입니다.

### 『未運論(말운론)』

天地海印 誰何說 佛道大師保惠印  
천지해인 수하설 불도대사보혜인  
天地人三 火印雨印露印 三豐三印  
천지인삼 화인우인로인 삼풍삼인  
天民擇地 三豐之穀 穀種求於三豐也  
천민택지 삼풍지곡 곡종구어삼풍야

[풀이] 천간에 무궁한 조화를 지어내는 해인을 누가 말했단가? 불도의 큰 스님이신 미륵불의 보혜인이요, 천자인 삼수에 응한 화인(火印), 우인(雨印), 로인(露印)의 삼풍 삼인이다. 하늘 백성이 택한 땅에 삼풍의 곡식이 있으니 곡식 종자는 삼풍에서 구하느니라.

### 甘露如雨海印說 天印地印人印 三豐海印

감로여우해인설 천인지인인인 삼풍해인  
雨下三發化字發 火印地印露印 化印合三理  
우하삼발화자발 화인지인로인 화인합일리

[풀이] 비와 같이 내리는 감로해인을 설명하자면 천인(天印), 지인(地印), 인인(人印)의 삼풍해인이 있는데 비처럼 내려서 세 번 피어나고 또 변화해서 피어나니 화인(火印), 지인(地印), 로인(露印)이며 화인(化印)은 삼인(三印)을 합하여 하나로 됨이로다.

### 兩白三豐何乎 一勝白豐三合一處也

양백삼풍하호 일승백풍삼합일처야

不老不死長仙之藥 水昇降之村 有處謂之兩白三豐也  
불로불사장선지약 수승강지촌 유처위지방백삼풍야

[풀이] 양백 삼풍은 무엇인가? 이간자 한 분과 양백 삼풍이 하나로 합쳐진 곳이 삼승지이나라. 불로불사 장생불사하는 신선의 불사약으로써 성령의 불은 내려가고 성령의 생령수는 올라가니 이른바 양백 삼풍이나라.

### 『聖山尋路(성산심로)』

世人難知兩白之人 天擇之人三豐之穀  
세인난지양백지인 천택지인삼풍지곡  
善人食料世人不見 俗人不食  
선인식료세인불견 속인불식  
一日三食飢餓死 三旬九食不飢長生  
일일삼식기아사 삼순구식불기장생

[풀이] 세상 사람이 알기 어려운 양백성인은 하늘이 택한 분이다. 삼풍의 곡식은 신선들이 먹는 음식 재료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볼 수도 없고 속인들은 구할 수도, 먹을 수도 없느니라. 세상 곡식은 하루에 세 끼를 먹어도 결국 굶어 죽지만 삼풍 곡식은 한 달에 아홉 끼만 먹어도 배를 주리지 않고 오래오래 살 수 있느니라.

### 求弓三豐不飢長生 求地三豐食者不生

구궁삼풍불기장생 구지삼풍식자불생  
求地者平生不得 求鄭於天三七滿足  
구정지자평생부득 구정어천삼칠만족

[풀이] 궁궁의 이치에서 삼풍을 구하여 먹으면 굶주림이 없이 장생할 수 있지만 땅에서 삼풍을 구하여 먹으려는 자는 죽으리라. 정도령을 땅(의 이치)에서 찾으면 평생을 두고도 찾지 못하여 정도령을 하늘(의 이치)에서 찾는 사람은 삼칠(3+7=10) 즉 십승인을 참음으로 만족하리라.

## 2. 삼풍을 내리는 주인공: 진십승(眞十勝) 정도령

삼풍의 곡식을 내리는 분은 격암유록이 예언한 「정도령(正道令)」이자 「십승(十勝)」입니다. 그는 나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사망의 권세를 이긴 이간자입니다.

※ 조(曹)씨 강림의 비밀: ‘조림(照臨)’이라는 표현은 하늘의 조(曹)씨가 강림하여 죄를 사하고 중생을 구원한다는 암호를 담고 있습니다. 이분이 바로 81공의 주인공이며 진짜 십승입니다. (천부경이 총 81자로 구성되어 있음)

※ 양백(兩白)과 삼풍: 하도(태백)와 낙서(소백)의 원리를 완성한 양백 성인이 삼풍해인을 가지고 오십니다. 그는 유불선(儒佛仙) 산도를 하나로 합친 성인이며, 미륵불이자 구세주 하나님으로 현신합니다.

※ 출현처: 이 성인은 과거 인천 부평(현재의 소사지역 포함)에서 출현하여 천지공사를 행합니다. 이곳은 성산성지(聖山聖地)이며, 마귀를 박멸하고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 『格菴遺錄(격암유록) 初章(초장)』

欲識養生保命處 吉星照臨眞十勝 兩白三豐眞理  
욕식장생보명처 길성조림진십승 양백삼풍진리  
眼赤紙貨人不睹 九宮加一十勝理 春滿乾坤福滿家  
안적지화인부도 구궁가일십승리 춘만건곤복만가

[풀이] 창생들이 목숨을 보전하는 곳을 알려거든 길성이 비추며 임하는 진짜 십승을 찾아가라. 길성은 어두운 밤 활로(살길, 영생의 길)를 열어주는 밝은 별로서 구세주라는 뜻이며 구세주 정도령은 ‘밝은 별(熙星)’이라는 함자를 가지고 있다. 이분이 진짜 마귀를 이기신 십승이다. 또한 구세주는 조(曹)씨로 강림하시니 이분이 진짜 십승이라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다.

조림(照臨)은 靑臨(조림)이다. 동음이의(同音異義)를 이용한 암호이다. 미륵진경에 ‘사죄천조구중생(赦罪天曹求衆生)’이라 하였으니 하늘의 조씨가 죄를 사하여 중생을 구원한다는 의미로서 81공 정도령은 조(曹)씨로 온다는 뜻이다. 그분이 진십승이다.

양백삼풍의 진리를 알아야 할지니 물욕에 물들고 돈에 눈이 빨간 사람을 이를 가려 보

지 못하는구나. 양백인 태백(하도) 소백(낙서)에서 백삼승이 나오고, 십승 정도령이 화우로 삼풍해인을 내려서 사람을 살리는 이 진리를 알아야 하건만 재물에 눈이 빨간 사람은 이를 알아보지를 못한다는 말이다.

※ 단공무궁 천상영물 감로여우  
단공무궁 천상영물 감로여우  
心火發白 永生之物 卽三豐之穀也  
심화발백 영생지물 즉삼풍지곡야

### 『은비가(隱秘歌)』

欲求人生安心處 訪道君子極濟蒼  
욕구인생안심처 방도군자극제창  
二加一橫 二人立 八十一俱富饒地  
이가일횡이인립 팔십일구부요지  
兩白三豐有人處 彌勒出世亦此地  
양백삼풍유인처 미륵출세역차지

[풀이] 도를 찾는 군자들이! 사람들이 영생을 얻어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곳을 찾으려면 창생들을 구제하는 곳이 있는 인천 부평을 찾아가라. 이가일횡이인립(二加一橫二人立)은 인천(仁川) 자의 파자. 팔십일구부요지(八十一俱富饒地)는 부평(富平)의 파자. 옛날의 인천 부평은 현재의 소사를 포함한다. 이 화우로 삼풍의 감로해인을 임의용지(任意用之)하는 십승지인(十勝之人)이 계산 곳이요, 미륵불이 출현하는 곳도 역시 이곳이나라.

### 佛佛仙三各人出 未復合一聖一出

유불선삼각인출 말복합일성일출  
武弓白石三豐理 移山倒海變化遷  
무궁백석삼풍리 이산도해변화운

[풀이] 유불선(儒佛仙) 삼도(三道)에서 각기 성인이 한 사람씩 나왔지만, 끝에 가서 다시 하나로 합쳐서 한 분의 성인(6도 81공 정도령)으로 나오느니라.

무궁(武弓) 백석(白石=흰돌=소사素砂) 삼풍(三豐)의 이치로 산을 옮기고 바다를 뒤집는 변화를 일으키는 운을 가지고 오시느니라.

### 單弓武弓天上靈物 甘露如雨

단공무궁 천상영물 감로여우  
心火發白 永生之物 卽三豐之穀也  
심화발백 영생지물 즉삼풍지곡야

[풀이] 단공(單弓)은 무궁(武弓)이며 마귀를 죽여 이기는 궁(弓)이니 천상(天上)의 영물(靈物)인 감로가 비와 같이 내리느니라. 이는 마음을 밝게 하고 회고 깨끗하게 하여 영생을 주는 신령스러운 영물(靈物)로써 즉 삼풍[三豐=화우로(火雨露)]곡식이라 하느니라.

### 『弄弓歌(몽궁가)』

天崩地拆素砂立 火雨露三豐理  
천붕지택소사립 화우로삼삼풍리  
天主大堂築高山 萬事一理成道時  
천주대당축고산 만사일리성도시  
聖神拒逆嘲笑時 天災地變並至時  
성신거역조소시 천재지변병지시

[풀이]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갈라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속담대로 마지막 중천운의 천지공사는 소사(素砂)에서 일어나느니라. 화우로(火雨露) 삼풍해인(三豐海印)이 내리는 하나님을 모신 큰 성전을 산과 같이 높이 세우니 만사(萬事)가 하나의 이치로 합해지는 도가 완성될 때에 성신(聖神)을 거역하고 조소한다면 천지의 재앙(災殃)과 변괴(變怪)가 동시에 일어나리나라. 하단에 계속

# 십승대왕, 우리 성주, 양백 성인, 미륵세존, 삼신대왕, 삼풍도사, 청림도사 등 모두가 정역(正易)의 주인공인 금운(金運) 정도령을 말한다

## 3. 삼풍의 역학적 원리: 지천태(地天泰)와 중천운(中天運)

삼풍의 이치는 우주 변화의 원리인 선천하도, 후천낙서, 중천해인의 과정 중 마지막인 「중천운(中天運)」에 해당합니다.

※ 지천태(地天泰): 하늘과 땅이 뒤바뀌어 소통하는 형상인 ‘여상남하(女上男下)’의 지천태대로 설명됩니다. 이는 죽음의 세상이 가고 태평성대인 영생의 세상이 열리는 천지개벽을 의미합니다.

※ 금운(金運)의 완성: 목운(木運)을 거쳐 금운으로 오시는 정도령은 무극대도를 완성하며, 사시사철이 사라지고 늘 봄과 같은 ‘사시장춘’의 낙원을 건설합니다.

### 『松家田(송가전)』

女上男下鶴龍之運(여상남하계룡지운)  
男女造化一般(남녀조화일반)이라  
海印三豐亞米打(해인삼풍아미타불)  
佛道昌盛(불도창성)이아닌가  
新運維運更新運(신운신운경신운)에  
先後過去中來(선후과거중천래)

[풀이] 여상남하(女上男下)의 계룡(계룡=풍뢰이괘)은 예는 남녀조화가 같이 일어나니 이는 화우로 삼풍해인을 용사(用事)하는 아미타불이 오셨음이라. 새 시대의 불도 창성

은 이를 두고 한 말이 아니겠는가? 새로운 운에 이어 운이 또 열리고 다시 새로운 운이 열리니 선천 후천 지나가고 중천이 오는 것이 그것이나라.

### 無所不能海印化(무소불능해인화)로

利出山渡海變天地(이출산도해변천지)를  
先後中天海印仙法(선후중천해인선법)  
長男長女(장남장녀) 마튼故(고)로  
震巽兩木末世聖(진손양목말세성)이  
風雷益卦鶴龍(풍뢰익괘계룡)으로  
利涉大川木道乃行(이섭대천목도내행)  
天道仙法出現(천도선법출현)하니  
女上男下地天泰(여상남하지천태)  
兩白三豐傳(양백삼풍전)했다네

[풀이] 능히 하지 못할 바 없는 해인의 무궁조화로 산을 옮기고 바다를 건너게 하여 천지를 새롭게 변화시키느니라. 선후천이 가고 중천이 오면 해인선법을 장남장녀가 맡은 고로 진손양목이 말세의 성인인데 풍뢰이괘(風雷益卦)의 계룡(계룡=계룡)이다. 양목(兩木)은 청림도사이며 ‘풍(風)은 손괘=장녀=계, 뫼(雷)는 진괘=장남=풍’이다. 이로움은 천지개벽이란 큰 내를 건너감에 있으니 목도가 행함이라. 천도선법이 출현하여 여상남하 지천태의 양백삼풍을 전하느니라. 목도는 진손양목 즉 청림도사의 불사영생의 도를 말하며 감로해인의 무궁조화로 천지개벽을 넘어간다. 배(구원선)를 타고 그 강을 건너간 자에게 할 말이 있지 못 건넌 자에게는 할 말이 없는 것이다.



▲ 화우로 삼풍해인 '감로'이며, 말세에 부여주는 신(神)이 되는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다(오월 2·28)

여상남하 지천태는 중천의 선운(仙運)을 64괘 중의 하나인 지천태대로 설명한 것이다. 태(泰)란 태평, 인태, 흥통하다는 뜻이니 만사가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 『聖運論(성운론)』

#### 매되었네 仙運(선운)와서

天上謫仙出世(천상제천출세)하니  
三之諸葛八韓信(삼지제갈갈한신)이  
三八靑林運氣(삼팔청림운기)바터  
十勝大王(십승대왕) 우리聖主(성주)  
兩白聖人(양백성인) 나오시고  
彌勒世尊三神大王(미륵세존삼신대왕)  
三豐道師出現(삼풍도사출현)하고  
西氣東來白虎運(서기동래백호운)에  
靑林道士(청림도사) 나오시고  
木兔再生鄭姓(목토재생정성)으로  
血流通中(혈류도중) 우리聖師(성사)  
鷄龍三月震天雲(계룡삼월진천간)에  
三碧真人(삼벽진인) 나오시고

[풀이] 때 되었네. 중천운이 들어 신선의 운이 올며 따라 천상의 여러 선인들이 세상에 나오느니라. 선운은 중천운이며 선도는 유불선 합일의 선도이다. 삼팔 목운으로부터 나온 청림도사(정도령)의 기운을 받아 제갈공명, 한신과 같은 뛰어난 선비와 대장군들이 세상에 나오느니라. 십승 대왕 우리 성주 양백 성인 나오시고 미륵세존이 삼신대왕이신 삼풍도사가 출현하고 하늘의 운이 서기동래(西氣東來)함에 따라 백호운(白虎運=금운)을 받아 청림도사로 나오시고 목토(木兔=목운)가 정도령으로 거듭나니 피눈물 흘리는 가운데서 완성의 무극대도를 깨치고(血流通中) 하나님 의 피가 전해진 해우반도의 사람들 중에서 나오신) 우리의 거룩한 스승으로 나오시고 계룡, 삼월(辰=춘달), 진(震=손신의 진), 천간(天間=북두칠성)이신 삼벽진인으로 나오시느니라. 십승대왕, 우리 성주, 양백 성인, 미륵세존, 삼

## 5. 결론: 인류에게 전하는 경고와 희망

격암유록은 무지한 자는 삼풍의 곡식을 허망한 말로 여기고 굶주리게 되지만, 지혜로운 자는 이를 깨달아 배불리 먹고 영생할 것이라 경고합니다. 거짓 목자를 따르는 자는 지옥의 고통을 겪게 되나, 삼풍해인(三豐海印)의 주인공인 정도령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신선의 경지인 선경(仙境)에 들어 갑니다.

따라서 지금은 화우로 삼풍의 이슬을 내리는 양백성인(兩白聖人)이자 십승대왕(十勝大王)이요, 청림도사(靑林道師)이며 삼풍도사(三豐道師)인 정도령을 찾아 그 진리대로 순종해야 할 때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가 그토록 갈망하던 불로초이자 불사약인 감로를 얻어 신선으로 화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 4. 삼풍지곡을 먹고 영생하는 비결

① 삼풍의 곡식을 먹는 것은 단순히 입으로 음식을 섭취하는 행위가 아니라, 영적인 변화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② 하나님을 바라봄(바라봄의 법칙): 아담과 해와가 선악과(마귀)를 바라봄으로써 타락했듯이, 이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봄으로써 내 속의 마귀(주체의식)를 죽이고 하나님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③ 마음 농사: 땅의 이치에서 삼풍을 찾으려 하면 죽음에 이르지만, 마음 밭을 가는 '하늘 농사'를 통해 삼풍을 구하면 영생합니다. 이는 탐욕과 물욕을 버리고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뜻합니다.

④ 승리제단과의 인연: 격암유록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승리제단)을 찾아 그분을 만나고, 그가 내리는 감로해인을 접하는 것이 구원의 유일한 길임을 강조합니다.

※ 격암유록에 나오는 삼풍(三豐)에 대한 내용을 전부 다 취합해서 해석하였사오니 아래 링크 주소를 참조하세요.

삼풍(三豐) 1: <https://blog.naver.com/pcs03393/224173792720>

삼풍(三豐) 2: <https://blog.naver.com/pcs03393/224173839385>

## 본부제단 032-343-9981~2 전국제단 및 해외제단 연락처

역곡제단 : (032)343-9981-2	김해제단 : 010-7518-9981	영천제단 : (054)333-7121	대전제단 : (042)522-1560	橫濱祭壇 : (045)489-9343
수원제단 : (031)236-8465	대구제단 : 010-6530-7909	사천제단 : (055)855-4270	청주제단 : 010-5484-0447	神戶祭壇 : (078)862-9522
안성제단 : (031) 673-4635	마산제단 : (055)241-1161	순천제단 : (010)3661-9025	오산제단 : 010-9980-5805	下關祭壇 : (0832)32-1988
부산제단 : (051)863-6307	진주제단 : (055)745-9228	정읍제단 : 010-8628-2758	양평제단 : 010-2945-8254	大阪祭壇 : (06)6451-3914
ये도제단 : 010-6692-7582	진해제단 : (055)544-7464	군산제단 : (063)461-3491		Sydney : (006)0415-727-001

원래 사람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다.